



5면

'전주XR·메타버스 산업 얼라이언스' 출범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음 5월 26일) 제3043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김관영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이장현 대변인(오른쪽)이 23일 전북도의회에서 취임식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도지사 취임식, 검소하면서도 내실 있게”

김관영 도지사직 인수위측 “당선인 뜻에 따라 예산도 4200만원으로 한정”

민생현장·청년·소외계층 초청 2000명 내외로... 도민께 희망 메시지 전달

제86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취임식이 다음달 1일 오후 2시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전북도의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진행된다.

이번 취임식은 미래세대 및 각계각층의 도민과 함께 소통하며, 민선 8기 도민을 섬기는 전북도정의 이미지를 부각한다.

이번에 초청되는 도민은 김관영 당선인이 선거 첫 임정을 잡은 부안 위도 주민을 비롯해 동쪽 끝 마을인 무주군 부평마을 주민들이다. 이는 김관영이 전북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기업인과

청년농을 초청, 함께 이들과 전북도정의 미래를 가꿔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아동과 여성, 다문화 가정,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을 초대, 도민 한반도 소외되지 않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김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

취임식 장소는 도청 공연장이며, 초청자는 2000명 내외다. 검소하고 조촐하면서도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하겠다는 김 당선인의 뜻에 따라 예산도 4200만원으로 한정했다.

타 시도가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한다는 지적에 인수위 측은 “상징적인 장소에서 할 수도 있지만 도민들에게 낮은 자세를 보이기 위해 실내로 선택

했다”고 말했다.

식순은 도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식 및 국민의례, 축전 소개, 취임선서, 취임사, 민선 8기 도민 희망 메시지, 축하공연,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취임식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취임식이 색다른 퍼포먼스가 있는 것은 아니다. 김관영 도지사의 취임식은 평소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스타일이 담겨 있다”며 “취임식은 선거 운동 기간 만나 온 상인들과 외지 주민, 청년, 아동, 문화예술 등 각계각층의 도민들과 함께 만드는 민선 8기 전북도의 희망 출발을 알리는 의미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원숭이두창 확산 방지 총력

국내 첫 환자 발생으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올라 도, 방역대책반 구성 전담 의료기관 지정 대응체계 마련

전북도는 원숭이두창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라갔다.

전북도는 원숭이두창 발생 대비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해 대비·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방역대책반은 복지여성보건국장을 반장으로 총 5팀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심) 환자 역학조사, 격리병원 지정 및 병상관리, 진단검사, 접촉자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나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 대응을 위해 전북대학교 병원을 '원숭이두창 전담 의료기

관'으로 지정했고, 향후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가 증가할 경우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대응체계는 보건소에서 원숭이두창 의심 사례를 전북도에 보고하면 역학조사관이 사례 검토 후 의심환자 여부를 판정하며, 의심환자로 판정 시 국가 지정 입원 치료병상(전북대학교병원)으로 격리하고, 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청에 이송한다. 양성으로 판정되면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확진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격리 입원 후 치료받게 된다.

원숭이두창의 주요 증상은 고열, 두통, 오한, 림프절 비대증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증상을 보이며 사지로 확산돼 수포, 농포 등으로 진행된다.

전북도는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원숭이두창 안내서를 배포하여 의심 환자 내원 시 주의사항과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신고·보고를 독려했다. 또한 23일 시·군 보건소 대상으로 원숭이두창 대응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도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해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3주 이내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연락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 주세요.**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400여년 전 제작 아미타불좌상 도난당한지 30년 만에 돌아와

장수 팔성사 대웅전서 내달 3일 봉안식 열어

도난당한지 30년 만에 팔성사로 돌아온 성보문화재 아미타불좌상의 봉안식이 7월 3일 팔성사 대웅전에서 거행된다.

장수 팔성사로 돌아온 아미타불상은 17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아미타불좌상으로 머리가 몸에 비해 큰 편이고, 손가락은 유난히 길고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미타불상은 조계종이 서용지는 범죄수사대 광진경찰서와 협력해 장기간 은닉해온 도난 불교문화재 7건 25점을 회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원 봉안처인 팔성사로 지난 21일에 돌아와 모셔졌다.

장수 팔성사 아미타불좌상과 함께 해남 대흥사 삼존불상과 완주 위봉사 관음, 지장보살상, 문경 김통사 사천왕도 등도 함께 회수됐다.

이들은 1989년에서 1994년 사이 도난된 것으로 보물급 문화재로 평가받는 것으로 대법원이 판결한 도난 성보 관련 최초 입수물 몰수 선



도난당한지 30년 만에 장수 팔성사로 돌아온 아미타불상.

고가 문화유산 환지분처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법륜스님(팔성사 주지)은 “1983년 팔성사 부처님이 도난된 후 참

회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다”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성보들이 원 봉안처에 예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부대중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6년을 하루같이 언제나 재판장까지 함께 고생해주신 팔성사 신도회장님과 총무원 직원분들께 감사사를 전했다.

한편 장수군 장수읍에 위치한 팔성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로 백제무왕 3년 (603)에 신라 해공대사 창건으로 진평왕 말엽 원효 의상 거주 당시 진평왕이 중수했고, 조선 세종 때 성주스님에 의해 재중수됐다. 백제 무왕 때 당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온 해강이 창건했으며 해강과 그의 실법을 듣고 귀의한 7명의 제자를 기리기 위해 팔공산이라는 산명을 붙이고 팔성사라 했다고 전해진다.

/장수=고관호 기자

언제! 어디서나!

시민에게 힘을 주는 김제시의회!

**김제 시의회
GIMJE CITY COUNCIL**